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및 예시답안

- ◆ 전형명칭: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 ◆ 모집계열: 인문계열 Ⅱ
- ◆ 출제유형: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2015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논술고사 양식의 다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 통계 자료나 표 등을 제시문들로 활용하면서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출제함으로써 일정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하되,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Ⅱ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을 묻는 2문항 및 수리적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1문항 등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인문계열 Ⅱ의 경우 정치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권력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양식을 다룬 제시문들을 통해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접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평가기준

- ①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 ②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
- ③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 ④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뒷면에 계속>

◆ 출제문제 해설

①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는 학생들이 혁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각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시각에서 혁명의 심리적이고 심층적인 동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선 건국의 혁명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이해를 넘어선 적용 능력과 비판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제 2] 이 문제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왔던 질문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모습과 기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마]는 소설 속에 나타난 가상 공동체 릴리푸트의 이야기를 통해 난장인들이 소외받는 자신들을 위해 설립한 평등사회의 이념을 드러낸다. 제시문 [바]는 19세기 초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유럽인의 눈에 비친 민주주의의 모습,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운 공동체의 소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두 사례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해법, 즉 ‘소규모의 자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며, 수험생들이 이러한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지하는 두 제시문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상반된 입장을 분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소규모 공동체와 다른 해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제시문 [사]의 논지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큰 흐름을 모두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국가’라는 강력하고도 중앙집중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비판이 반드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제 3] 경제 성장의 목표는 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의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때 총량적인 경제의 성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우, 양적인 성장은 달성하였지만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은 때때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성장의 혜택이 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가 결여되는 데 일부 기인한다. 경제의 공평한 분배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일국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소득불균형 보고서(Income Inequality Update)>(201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경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빈곤층, 청년층의 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하락하는 등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뒷면에 계속>

경제의 공평한 분배가 일국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경제의 공평한 분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OECD가 발표한 각종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수험생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표는 경제성장률 등 총량적인 경제성장률 지표와는 달리 여러 계층간의 상대적 소득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가지 지표보다는 여러가지 불평등 지표를 함께 분석하여야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동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계층간 상대적 소득비율, 계층별 소득 비중 등의 지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②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세계사』(교학사, 2013) 교과서에 실린 <동아시아 문명>에 근거하여, 주나라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중국 문명을 여는 역사적 시공간을 소개하였다. 지문은 『사기열전(史記列傳)』을 중심으로 삼되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나라의 혁명을 비판하며 절의를 지켰던 백이(伯夷)의 삶을 드러나게 하였다.

제시문 [나]는 세종 29년 간행한 『용비어천가』의 1장과 7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문학 II』(두산, 2011)과 『고등학교 문학 II』(비상, 2011)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지어 부르게 한 의도,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간행하여 전파하고자 한 다양한 노력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개국 세력이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자신의 선조들을 해동 육룡에 비유하고 태조와 태종의 행적을 중국 성군들과 나란히 놓았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후의 왕들과 위정자들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활용하였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2009)에서 발췌한 글로, 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사태가 갖는 의미를 전통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혁명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기존 법제도에서 볼 때 불법적인 행위지만, 그것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혁명이나 예외상태는 언제나 구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초법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의 『혁명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Revolution, 1913)에서 발췌하였다. 혁명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것이 군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르봉은 혁명이 어떻게 군중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마]는 조세희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단편소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중 일부로서, 『고등학교 문학 I』(천재교과서, 2011)과 『고등학교 문학 II』(미래엔, 2011)에 수록된 작품이다. 장애와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공 난장이의 현실과 독일의 '릴리푸트 읍'에 형성된 난장이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소규모 자급자족 경제 활동, 협동적 사회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소규모 공동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뒷면에 계속>

제시문 [바]는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9세기 초에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201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저술에서는 당시 미국을 여행했던 토크빌이 유럽대륙과 전혀 다른 미국 시골지역의 정치 공동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권력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던 당시의 프랑스에 비해 토크빌이 관찰했던 미국의 타운 공동체는 일상사를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는 소규모의 자발적 결사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시문 [사]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조세제도의 개혁과 소득분배제도의 개선을 통해 21세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중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 피케티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상회의존의 세상에서는 '국가의 귀환'이 필수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 조건을 달성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예시 답안 및 분석

① 문제 1-(1) [25점]

● 예시 답안

세 편의 제시문은 모두 ‘혁명’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으나 혁명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의 중심인물인 백이는 ‘포악한 방법’으로 기존의 권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이 부당하다고 여긴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굳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나]의 용비어천가를 창제한 이들, 즉 세종과 그 신하들은 신하된 자라도 하늘의 뜻을 받았다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백이와 다르다. 성현의 도와 충절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무력으로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혁명이 천명을 거스르는 인위적 역모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뜻이 함께 하는 혁명은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다]에서는 혁명은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계기라는 관점을 취하며 [가]나 [나]와는 달리 혁명의 불가피성이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혁명과 같은 예외적 상태는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는 분명 비합법적이고 반법률적이지만, 혁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은 낡은 체제를 무효화하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새로운 법과 체제를 탄생하게 한다.

혁명을 통한 새로운 세계를 긍정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나]와 [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일치하나, [나]에서는 혁명의 사후에 ‘천명’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혁명을 합리화하려 애쓰는 반면 [다]는 혁명을 통해 과거 낡은 법과 체제가 새롭게 대체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근거를 들어 혁명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으며, 예외적 상태와 초법적 판단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예시 답안 분석

문항 (1)에서는 제시문 [가], [나], [다]에 대해 혁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답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은 천명이라는 점을 같이 생각하면서도 [가]의 백이가 혁명을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와 [나]의 조선 건국 세력들이 가졌던 천명 받은 이들의 혁명 불가피론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 혁명을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파악하는 [다]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천명을 거스르는 혁명을 강하게 비판한 [가]와의 차이를 적절히 부각하였다. 아울러 [나]와 [다]가 혁명을 통한 세계를 긍정적으로 지향한다는 유사점과,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섬세하게 짚어 냄으로써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제시하였다.

② 문제 1-(2) [15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중들의 심리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인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단지 정부의 명칭만 바꾸거나 기존 제도를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다수 군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적이고 신비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 건국의 주체들은 제시문 [라]에서 말한 대로 ‘파괴해야 할 대상’에

<뒷면에 계속>

집중하여 나라의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고, 부패한 나라를 새로운 질서에 기반한 국가 체제로 바꾸는 데 주력하였지만, 다수 백성들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면에 호소하여 마음을 얻는 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혁명 후인 조선 4대 왕 세종 때에 간행한 『용비어천가』는 제시문 [라]에서 말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여 조선 건국의 주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 후대의 왕들은 조선 건국이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혁명’으로 완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금 『용비어천가』에 주목했다. 그들은 전란 후 피폐해진 민심을 다독이고, 국운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용비어천가』를 다시 발간하였으며, 축약본까지 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써 제시문 [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예시 답안 분석

문항 (2)에서는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용비어천가』를 간행한 의도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을 완수하려면 제도적인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 군중의 마음을 움직여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 어떤 맥락에서 『용비어천가』가 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군중의 심리와 감정이 혁명을 완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용비어천가』에서 건국 세력의 출중한 능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천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내용을 서술한다거나, 조선 초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접하게 하여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연결될 수 있다. 우수답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잘 포착하여 답안을 완성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와 [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답안이다.

③ 문제 2 [30점]

● 예시 답안

우선 이들 두 지역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해온 사람들을 위한 사회 공동체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릴리푸트는 난장이들을 위한 목적에서, 뉴잉글랜드는 이민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서 마련된 지역 공동체이다. 또한 이들 공동체는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바람을 구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릴리푸트의 경우 나눔과 배려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작동하는 반면, 뉴잉글랜드의 타운 공동체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연방정부 대신 민주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두 지역 간의 이러한 유사성은 ‘자발적 참여와 평등한 사회이념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자치 공동체’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제시문 [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귀환’이라는 현상과 대비된다. 제시문 [사]는 1930년대에 이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상호의존이 시장이나 정부 모두 대규모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국가’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주도하는 조세 제도 개혁과 소득 이전 제도의 현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사]는 제시문 [마]와 [바]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한

<뒷면에 계속>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 인문계열Ⅱ]

사회적 문제해결 장치를 주문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릴리푸트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외부의 현실세계나 뉴잉글랜드의 타운 공동체와 대비되는 프랑스의 중앙집중적 정치체제가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위협과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시문 [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 문제는 제시문 [마]와 [바]에서 찬양하는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 예시 답안 분석

우수답안의 핵심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1) 제시문 [마]와 [바]에서 나타난 소규모 공동체의 유사성 기술, (2) 제시문 [사]의 내용 정리, (3) 소규모 공동체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에서 주장하는 국가 중심적 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우선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우수답안은 릴리푸트와 뉴잉글랜드 사이의 유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나열하고 있다: 자발적 공동체, 지역 기반, 민주주의적 참여, 작은 정부, 평등과 개방, 중앙집중적 정부의 부재.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우수답안은 제시문 [사]가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올바르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시장중심 접근이나 국가중심 접근 사이에 완전한 정답은 없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자의 관점이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중심적 해법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이것이 제시문 [마]와 [바]의 시각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문제 3 [30점]

● 예시 답안

(1) 먼저 2011년 현재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는 칠레이다. 「표 1」에서 제시된 여러 국가의 지니계수와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을 보면 칠레가 각각 0.503 및 26.5로 가장 높아서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국가는 스페인이다. 지니계수와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 각각의 2007년 및 2011년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스페인은 해당 연도간에 지니계수가 0.306에서 0.344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8.4에서 13.8로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게 변동하였다.

(2) <표 1>에서 2011년의 그리스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2008~2011년중 소득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락된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10.0 \times (1.0 \times 1.03 \times 0.9 \times 0.8) \div (1.0 \times 1.03 \times 0.8 \times 0.7) = 12.9$ 가 된다.

(3) 먼저 전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을 X라고 한다면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므로 $100 \times 0.2 / X = 0.05$ (하위 20% 소득비중)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풀면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을 Y라고 한다면, $Y \times 0.1 / X = 0.2$ (상위 10% 소득비중)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X=400이므로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위 2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20.0 / 5.0 = 4$ 이므로, $Y \times 0.1 / (100 \times 0.2) = 4$ 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00만원임을 바로 알 수 있다.